

2020-2

서양화전공 온라인 과제전

2학년



<인체표현(2)>

2학년 A반

정규형 선생님

<회화(2)>

2학년 A반

**디룩 플라이쉬만
교수님**

<출판미술>

2학년 A반

윤종필 선생님

<판화(2)>

2학년 A반

윤세희 선생님

<인체표현(2)>

2학년 B반

이 송 선생님

<회화(2)>

2학년 B반

**디룩 플라이쉬만
교수님**

<출판미술>

2학년 B반

윤종필 교수님

<판화(2)>

2학년 B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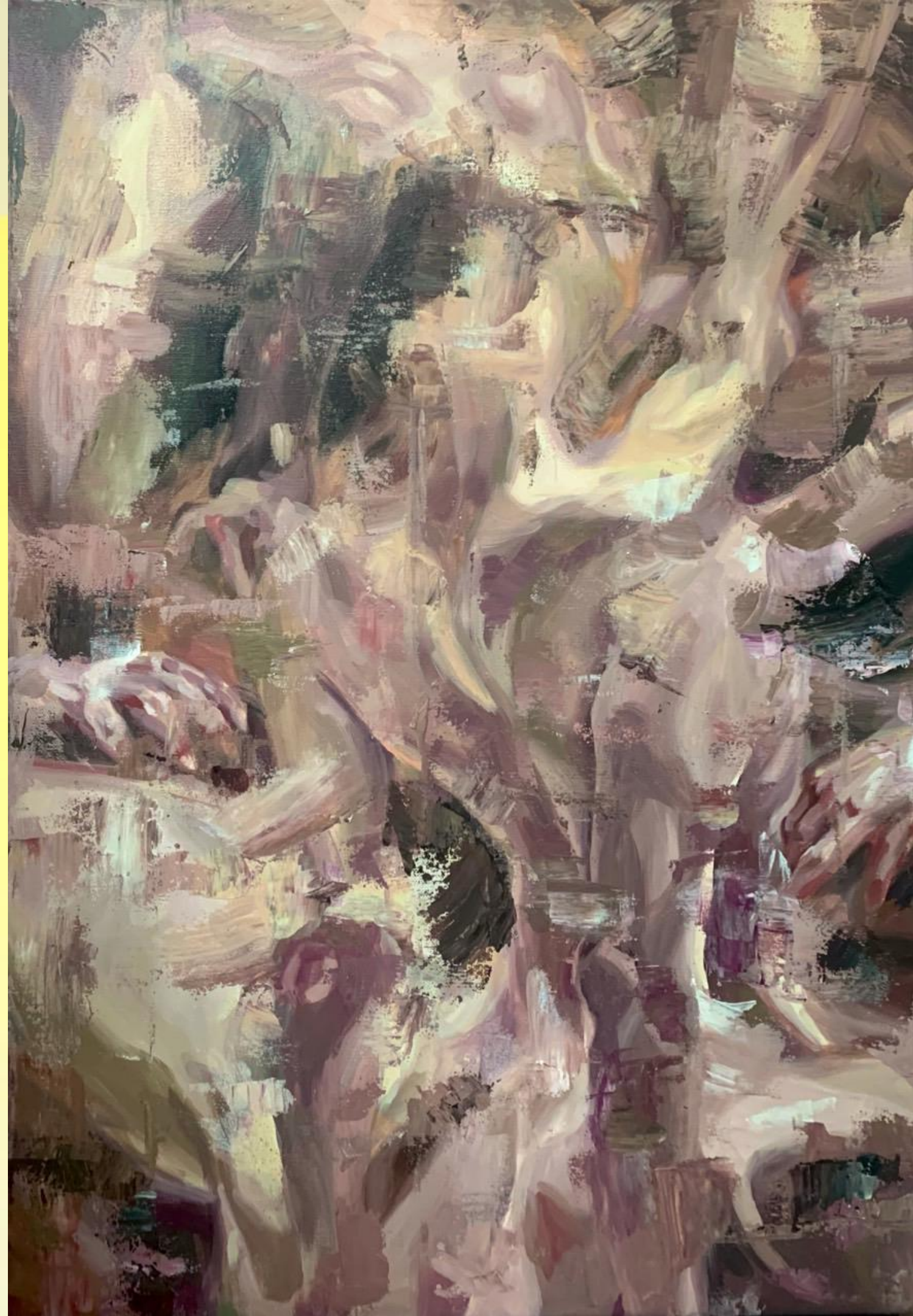
김홍식 선생님

<인체표현(2)>

A반 - 정규형 교수님

B반 - 이송 선생님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이경준
Equivalent, 72.7 x 53.0cm, acrylic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서정우
요즘 어때? 그저 그래, 145.5 × 112.1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20
파란 세상, 네모난 세계, 145.5 x 112.1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최민준

Untitled, 33.0 x 40.5 x 2.3 cm, grinded picture on wasted paper, powder made by grinding magazines , 2020

Untitled, (21.0 x 29.7)x4 cm, magazines grinded by sandpaper,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고수민
추억, 45.5 x 45.5 (cm), 캔버스에 오일,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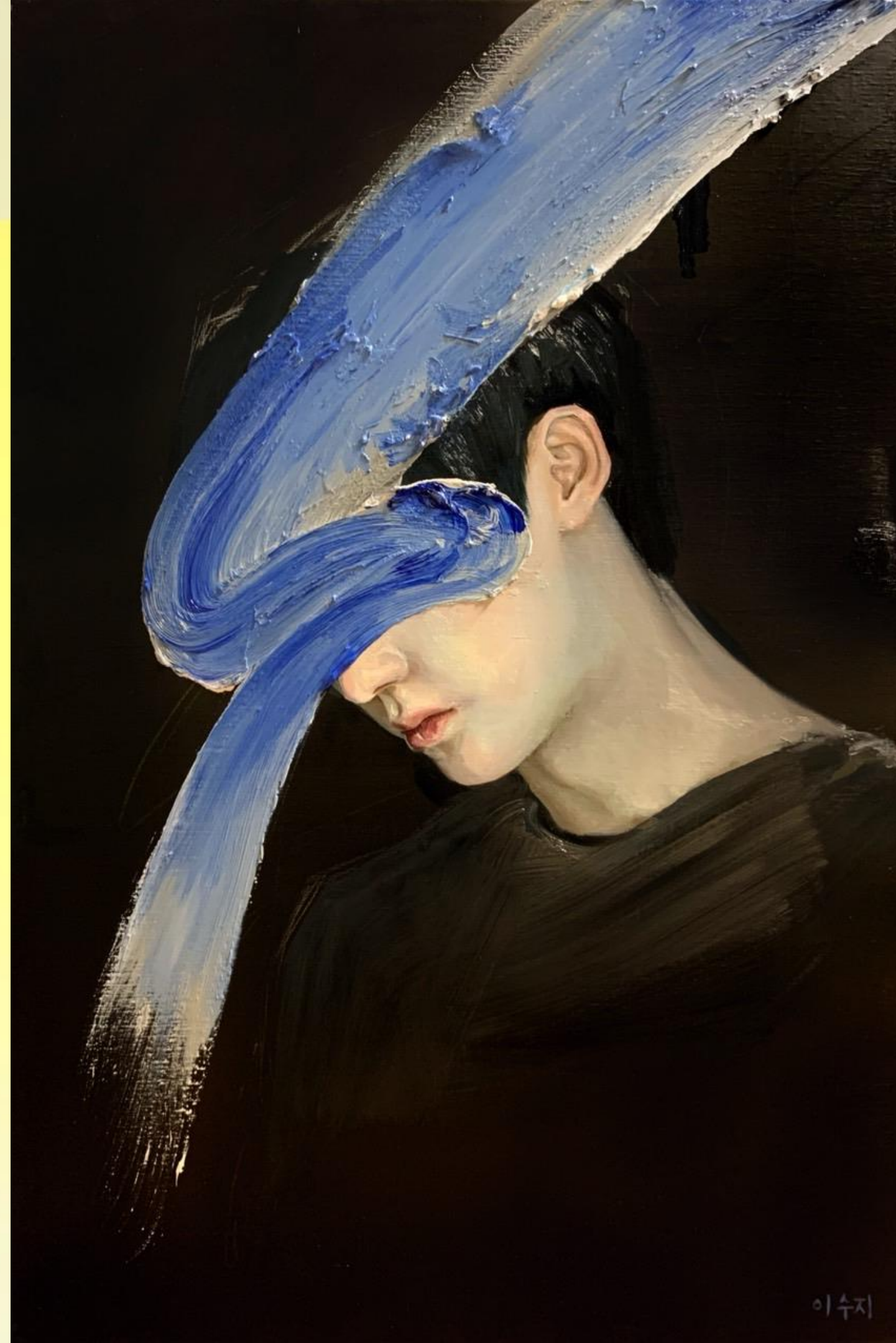
정예나
Holiday, 72.7 x 60.6cm, 캔버스에 유채,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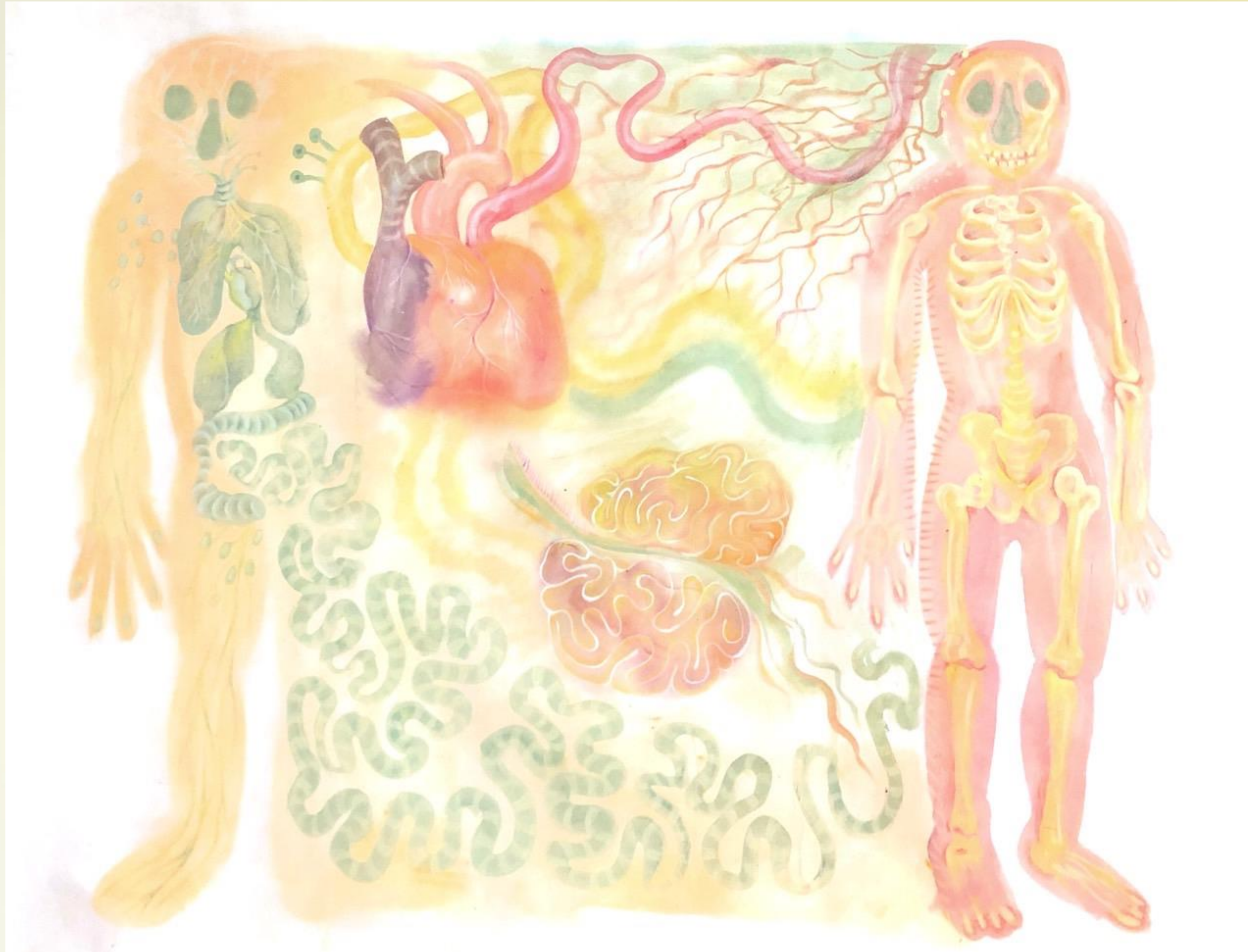
이유리
Even after, 72x53 cm, Gouache with Swarovski on panel,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이수지
눈이 먼 아이야, 90.9×60.6cm, 캔버스에 유화,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이한비
공유, 94x74cm, 한지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김가연
위선, 40.9×53 cm, 판넬에 수채화, 2020
위선_타오를지언정, 디지털 드로잉,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오병욱
사랑하자, 53.0x72.7cm, oil pastel and acrylic on canvas, 2020
사랑해?, 116.7x72.7cm, oil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장지숙
인연, 90.9×60.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홍채현
흘러간다, 캔트지에 수채화, 색연필,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김예진

17.06.00, 53 x 53(cm), canvas on oilpainting, 2020

인체표현(2) A반 정규형 선생님



성연서

Be nice, 60.6×45.5cm, watercolor on paper,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최지나
자화상, 53.0×45.5cm, oil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B반 이송 선생님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현진영
자화상, 53.5x43cm, acrylic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최지영
걸어간다, 60.6 x 72.7 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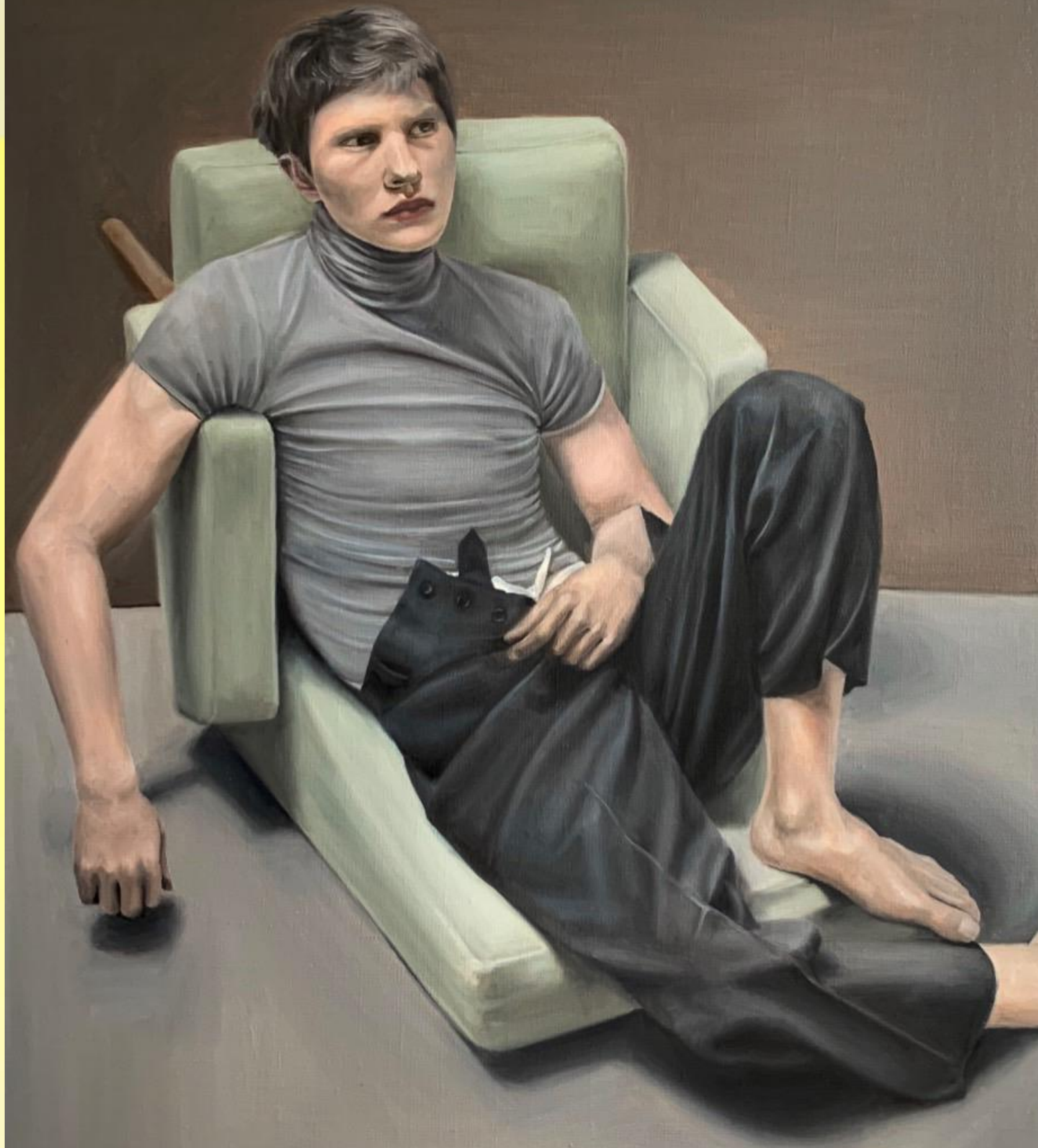
김민영
비상, 72.7 x 60.6 cm, 캔버스에 유채,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신지혜
목련, 72.7 x 60.6 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한지원
無, 53x72.7(cm), 캔버스에 유채,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김성하
발레리나, 72.7×60.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신예지
과유불급, 46x55 (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우지연
父, 53x45.5(cm), oil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B반 이송 선생님



김하연
가두지 마세요, 56x56cm , 광목에 실,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이희수
태리야끼, 2091KB, 디지털작업,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김예은
on the beach, 91x72.7cm, oil on canvas, 2020

인체표현(2) B반 이 송 선생님



우지연
뽑기, 90.9x72.7(cm), 혼합매체, 2020



이유진

My luv Colin, 72×5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회화(2)>

A반, B반 – 디렉 플라이쉬만 교수님



이경준
Equivalent, digital media, 2020

화화(2) A반 디록 플라이쉬만 교수님



최성우
이대로 사라져만 가는가, 162.2 × 97 cm, 캔버스에 종이와 아크릴, 유채, 2020

화화(2) A반 디렉 플라يش워만 교수님



최민준

Esquire, 15.0 x 15.0 cm, powder made by grinding magazines on canvas, 2020

A malfunctioning prism, 45.0 x 60.0 cm, powder made by grinding magazines on mirror, 2020

화화(2) A반 디록 플라이쉬만 교수님



권영훈
Gap, 20.32 x 25.4cm, 디지털 프린트, 2020

화화(2) A반 디렉 플라يش워만 교수님



오병욱
알아봅시다, 15X15cm, ink print on paper, 2020
다음 단계, 116.7X72.7cm, oil on canvas, 2020



장지숙

No.1 , 53x45.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화화(2) A반 디룩 플라이쉬만 교수님



성연서
architecture, 89.7×60.6cm, digital; clip studio, 2020



화화(2) B반 디록 플라يش만 교수님



김예은
love, 27.3x22(cm), oil on canvas, 2020



신지혜
Seabed exploration , 30x20cm, 레진과 필라멘트와 점토, 2020



김민영

The God of Time - In Forest of Memory, 60.6 x 90.9 cm, Acrylic Gouache on Canvas, 2020

화화(2) B반 디룩 플라이쉬만 교수님



조정운
時間, 60.6x 72.7cm, oil on canvas, 2020

화화(2) B반 디록 플라이쉬만 교수님



우지연
Life goes on, variable size, acrylic on canvas, 2020

화화(2) B반 디렉 플라يش워만 교수님



이유진
Fancy, 35 x 60cm, Acrylic on Canvas, 2020

<출판미술>

A반, B반 – 윤종필 선생님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심장이라는 사물 2

오늘은

목소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벽에 비친 희미한 빛

또는 그림자

그런 무엇이 되었다고 믿어져서요.

죽는다는 건

마침내 사물이 되는 기막힌 일

그게 왜 고통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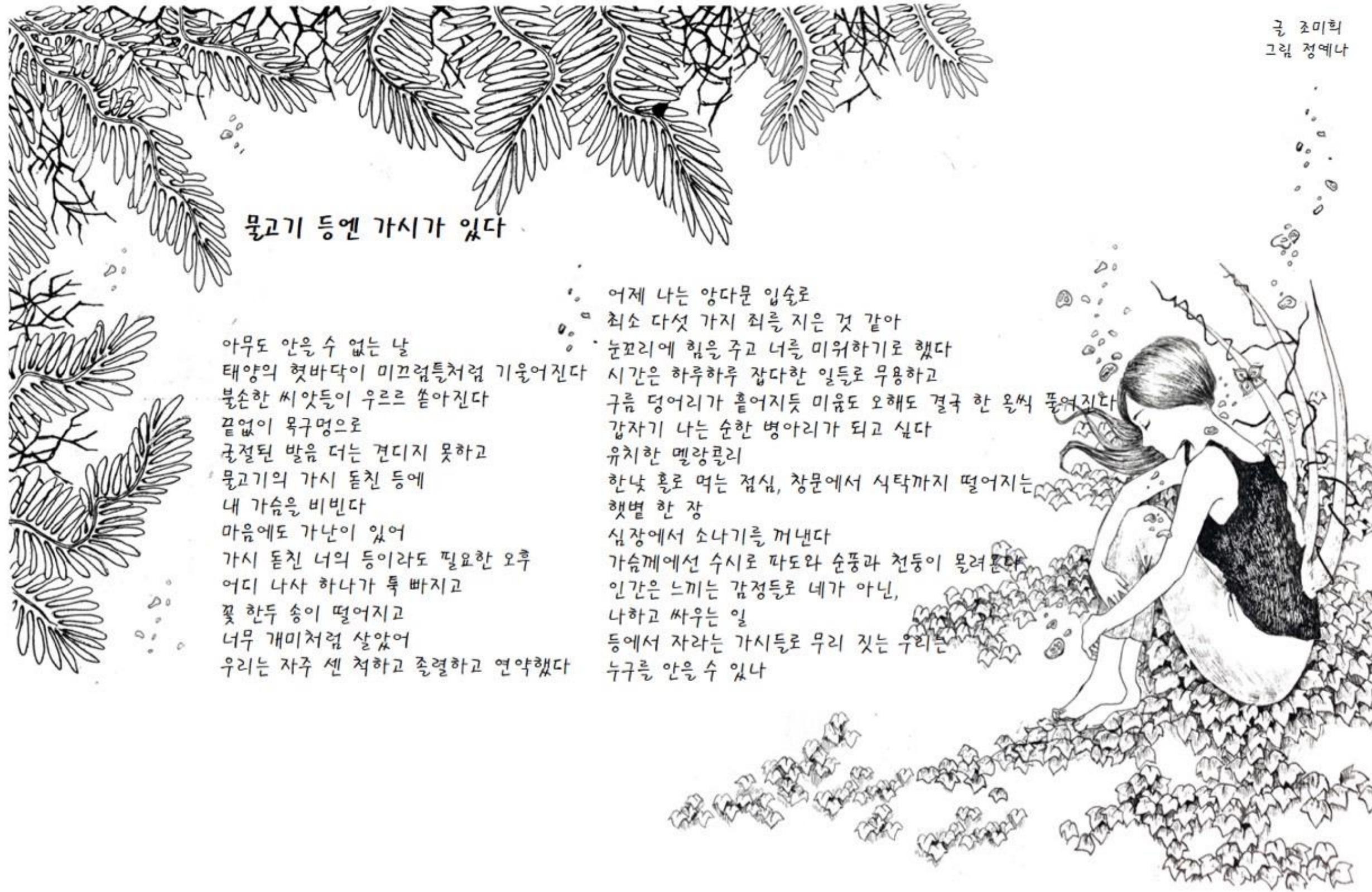
이경준
심장이라는 사물 2, digital media,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최성우
오베라는 남자 각각, 21.0 × 29.7cm, 디지털 드로잉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글 조미희
그림 정예나

물고기 등엔 가시가 있다

아무도 안을 수 없는 날
태양의 햇바닥이 미끄럼틀처럼 기울어진다
분손한 씨앗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끝없이 목구멍으로
궁절된 발음 더는 견디지 못하고
물고기의 가시 돋친 등에
내 가슴을 비빈다
마음에도 가난이 있어
가시 돋친 너의 등이라도 필요한 오후
어디 나사 하나가 툭 빠지고
꽃 한두 송이 떨어지고
너무 개미처럼 살았어
우리는 자주 센 척하고 존경하고 연약했다

어제 나는 양다문 입술로
최소 다섯 가지 죄를 지은 것 같아
눈꼬리에 힘을 주고 너를 미워하기로 했다
시간은 하루하루 잡다한 일들로 무용하고
구름 덩어리가 흩어지듯 미움도 오해도 결국 한 뼘씩 풀려진다
갑자기 나는 순한 병아리가 되고 싶다
유치한 멜랑콜리
한낮 홀로 먹는 점심, 창문에서 식탁까지 떨어지는
햇볕 한 장
심장에서 소나기를 꺼낸다
가슴께에선 수시로 파도와 순풍과 천둥이 몰려온다
인간은 느끼는 감정들로 네가 아닌,
나하고 싸우는 일
등에서 자라는 가시들로 무리 짓는 우리는
누구를 안을 수 있나



최민준
Famous saying, 13.1 x 18.1 x 2.6 cm, digital printing on OHP,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모닥불놀이

끈질기게 버티던 몸뚱이들
한데 어울려 향연을 펼친다.
서로를 데우는 불꽃의 향연
하나는 검붉은 연기로 날라가고
또 하나는 불더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화염의 춤사위 잦아지고
남은 건 식어버린 하얀 잿더미

한줌의 재가 되려고
맹렬히 불태운 모진 살들
그렇게 서로를 데우나 보다.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재가 되어도
한 줌 재만 남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삶이도록
그리도 맹렬히 몸을 데운다.

글 : 이승세 그림 : 교수민

교수민
모닥불놀이, 디지털미디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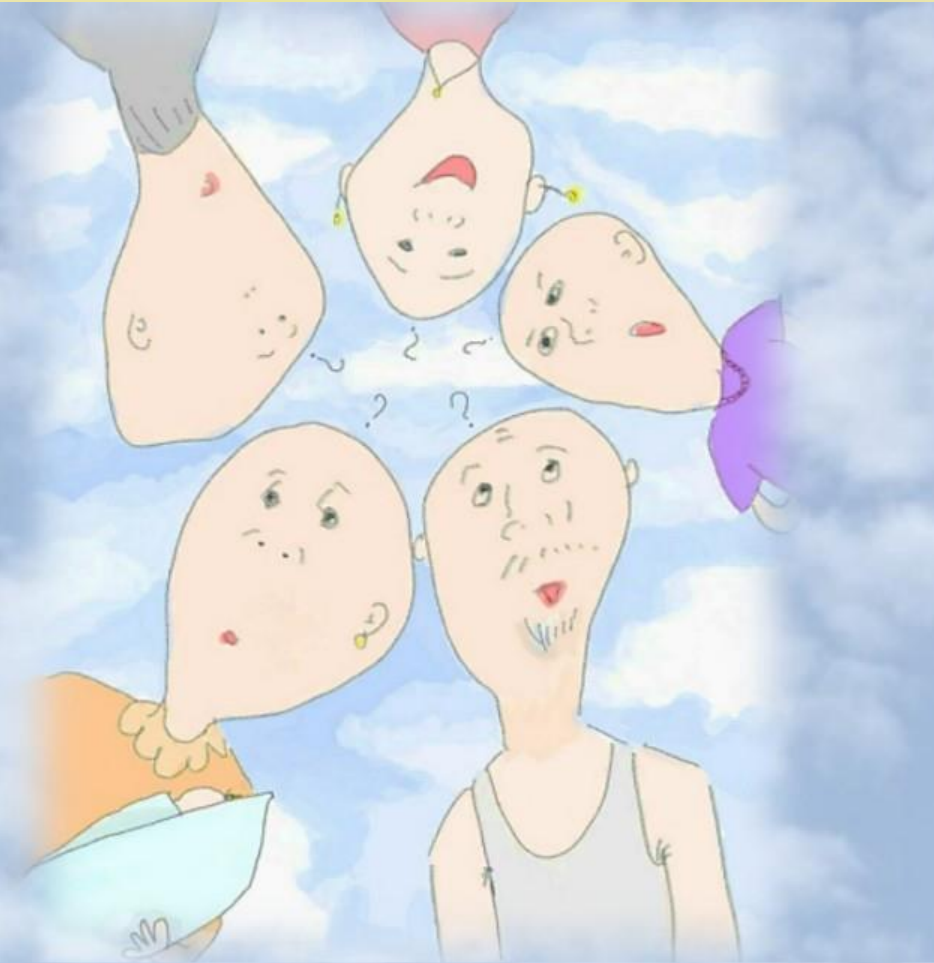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당신이 주인공

삶이란 드라마에
당신이 주인공이다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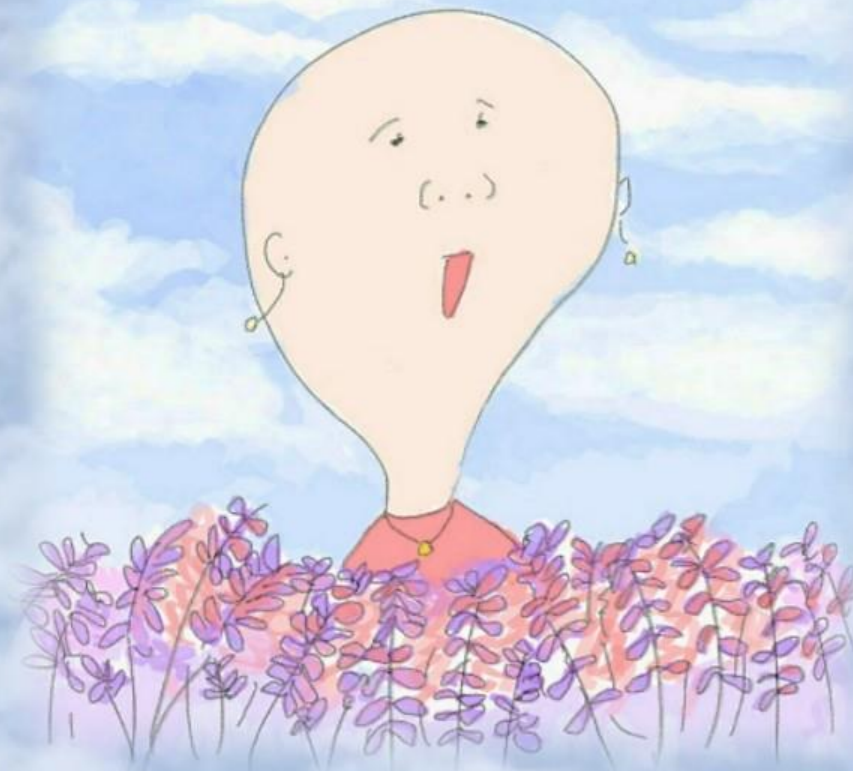
아무런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어야 멋지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감동하고 환호하고
좋아하던 삶에서
자신이 한 일에
감동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늘 박수 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도 박수를 받아야 한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 속에서
당신이 주인공이다



글:용혜원 그림:김가연

김가연
당신이 주인공, 디지털 드로잉,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봄기운도 참
바람이 이렇게 달아 살살 건지럽혔다

풍금꽃을 벗꽃의 아지 어래서
당신은 봄의 오직절에 돌아오는 중이다
시시르 연인의 입술에 달리붉은 꽃잎을
종-리고 숨결로 떼어내거나
꽃을 먼저 보낸 청결한 곡은 일이
연인의 분홍 잇몸에 돌아오는 걸 보겠다
혹은 돌날이는 벗꽃이 허투루 흘리는 점괘 따위를
받아 오시거나, 애연굴면하거나



구운물에 묻지(烹飪)로 수직을 건넌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문자는 다름 아닌 벗꽃의 아스리한 점괘, 더 흘리는 점괘는 사실상 뿐
오래 예매도 좋을 달인이었다 마침 연인의 입에가 험시리 돌릴 운산은 아닌데,
애연굴면이라도 살살 무쳐 연인의 입맛을 돌출 수 있다면

그러니 당신, 외전놀이에 수직이 빠져서야 될까
꽃술이 시로의 입술에 번지듯 물들고
술잔에 꽃잎 둘 듯 정황 언 피가 돌고 나서야
비로소 꽃이 꽃처럼 보이는 경지



벗꽃의 점괘를 받아치는 일이란
꽃이 꽃처럼 보이는 삶에
바람의 순물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알맞은 일
혹은 그 꽃비를 두 손에 받아 오스리는 어리석음
가는 봄날 벗꽃의 저 돌날임은
안 들리던 점괘의 활기가 허공에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
빈 점괘는 꽃의 후대(後代)에나 돌아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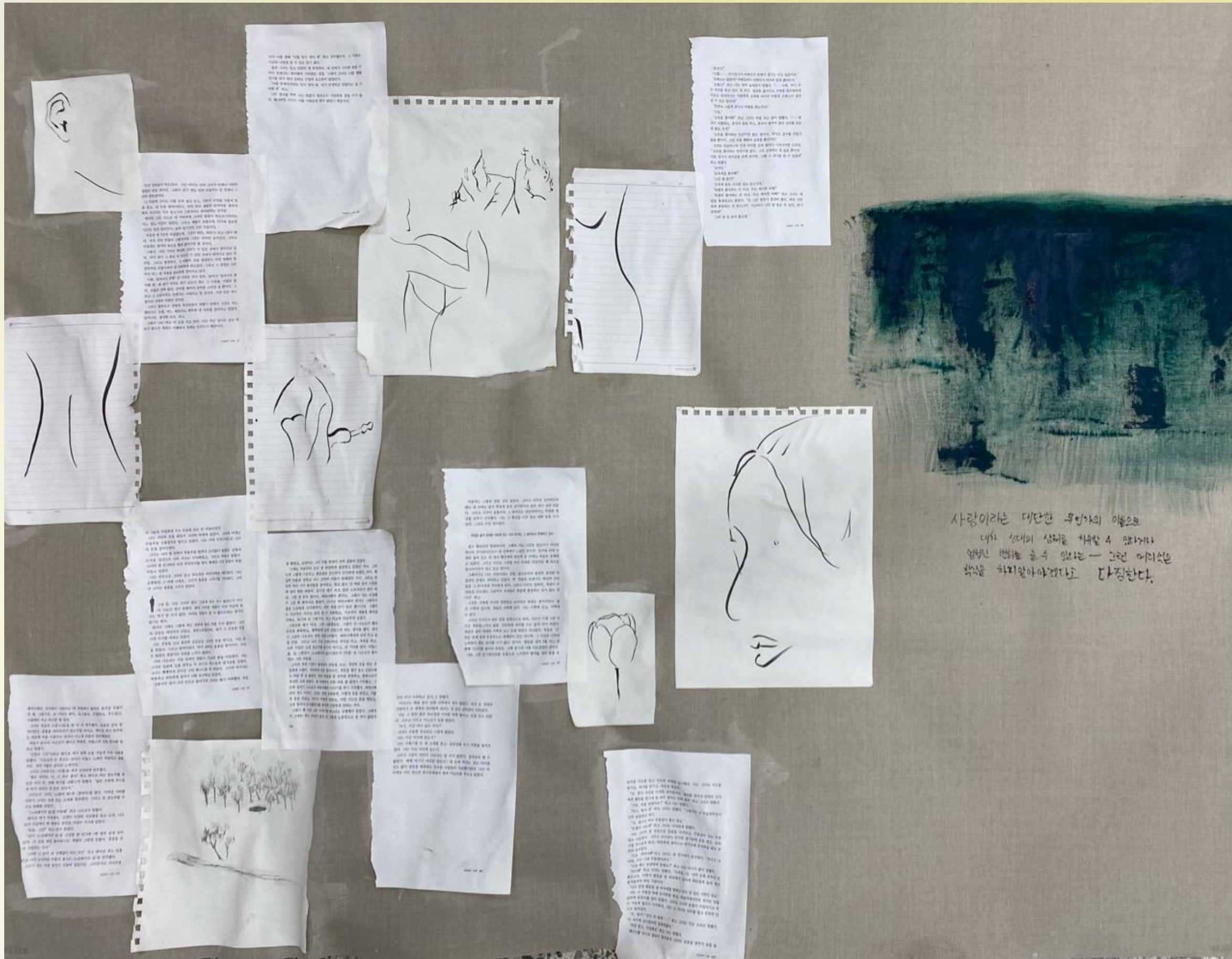


봄은 피열음이다
그러니 당신, 오늘의 봄밤
꽃잎의 피열음에 귀가 녹아 숨은 곳 가겠다
생을 저당 잡히고도 점괘 받는 일이 있을 당신이었다



이수지
벗꽃의 점괘를 받아적다, 디지털미디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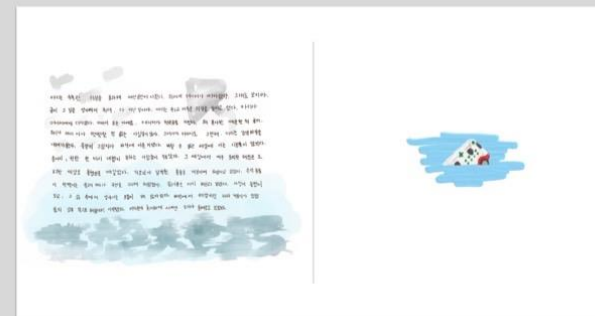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사랑이라는 대단한 무언가의 이름으로
내가 생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거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희생을 하지말아야겠다고 단정한다.

오병욱
와타나베가 되고싶어, 160x118cm, mixed media on cotton,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김민지
물의 고요, 디지털미디어, 2020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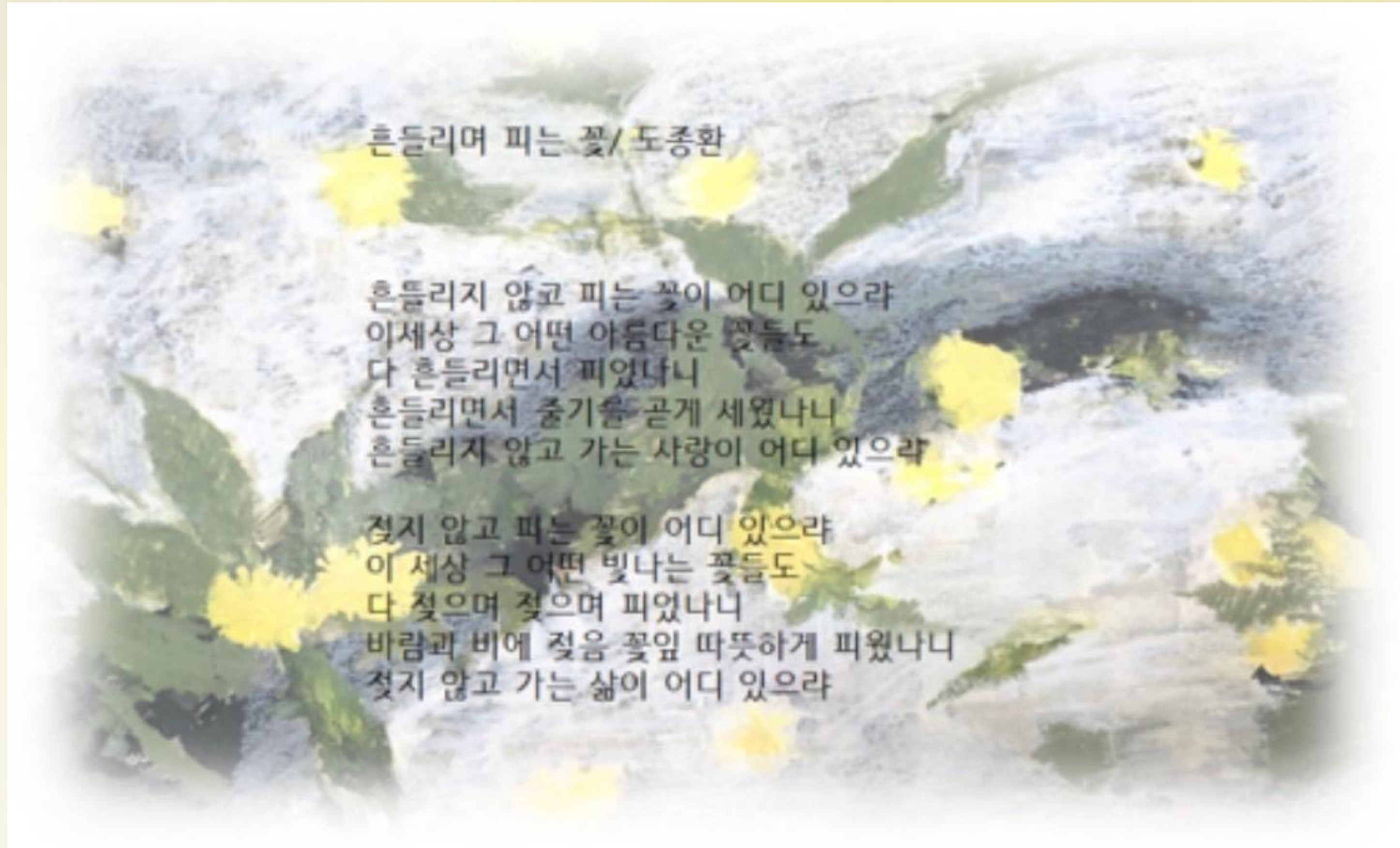


장지숙
버킷다이어리, 15X23.5cm, 하드보드지에 크라프트 색지와 육공철제 바인딩,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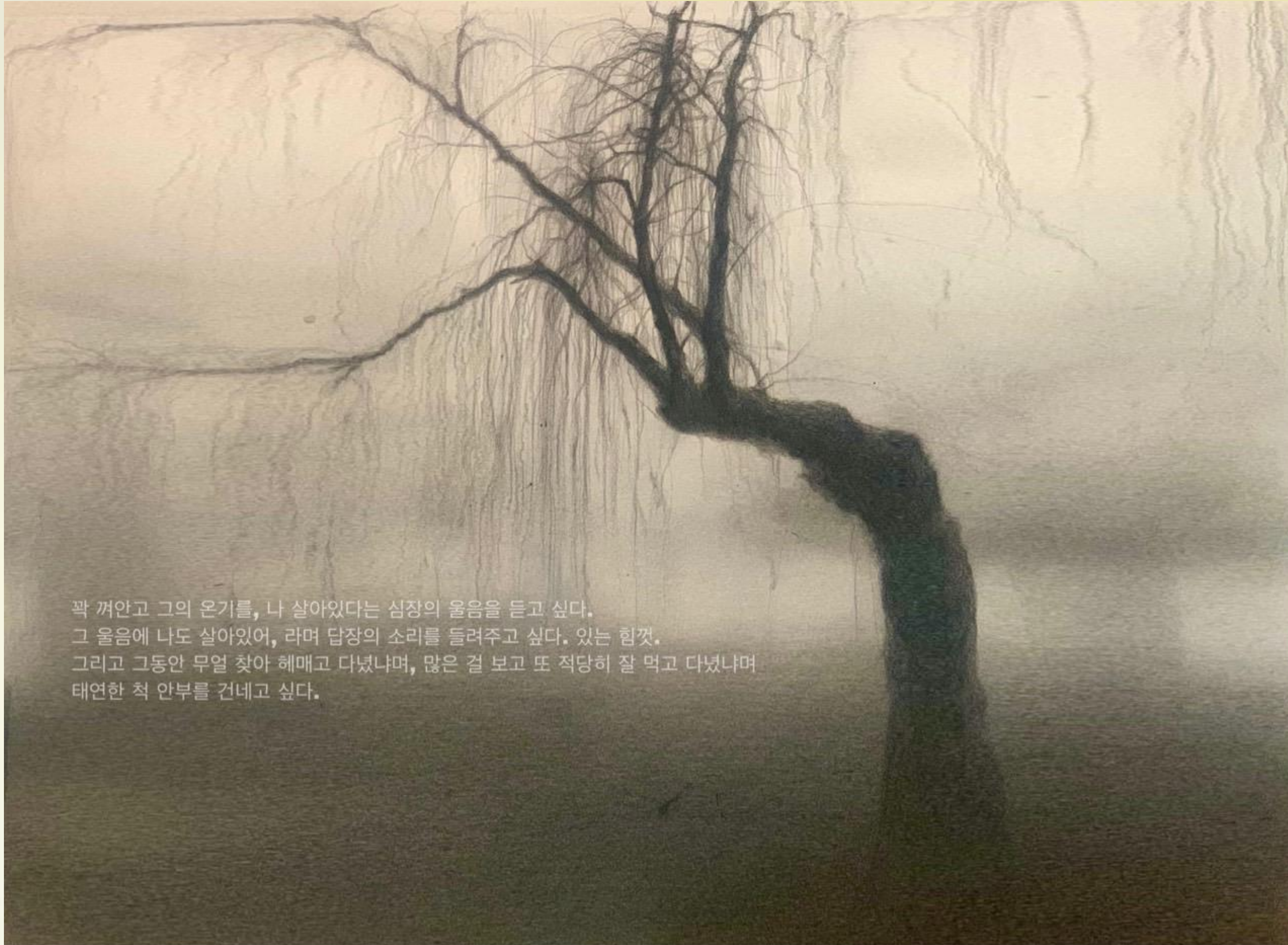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홍채현
딸에게, 31.8x46.8(cm), 캔트지에 수채화, 색연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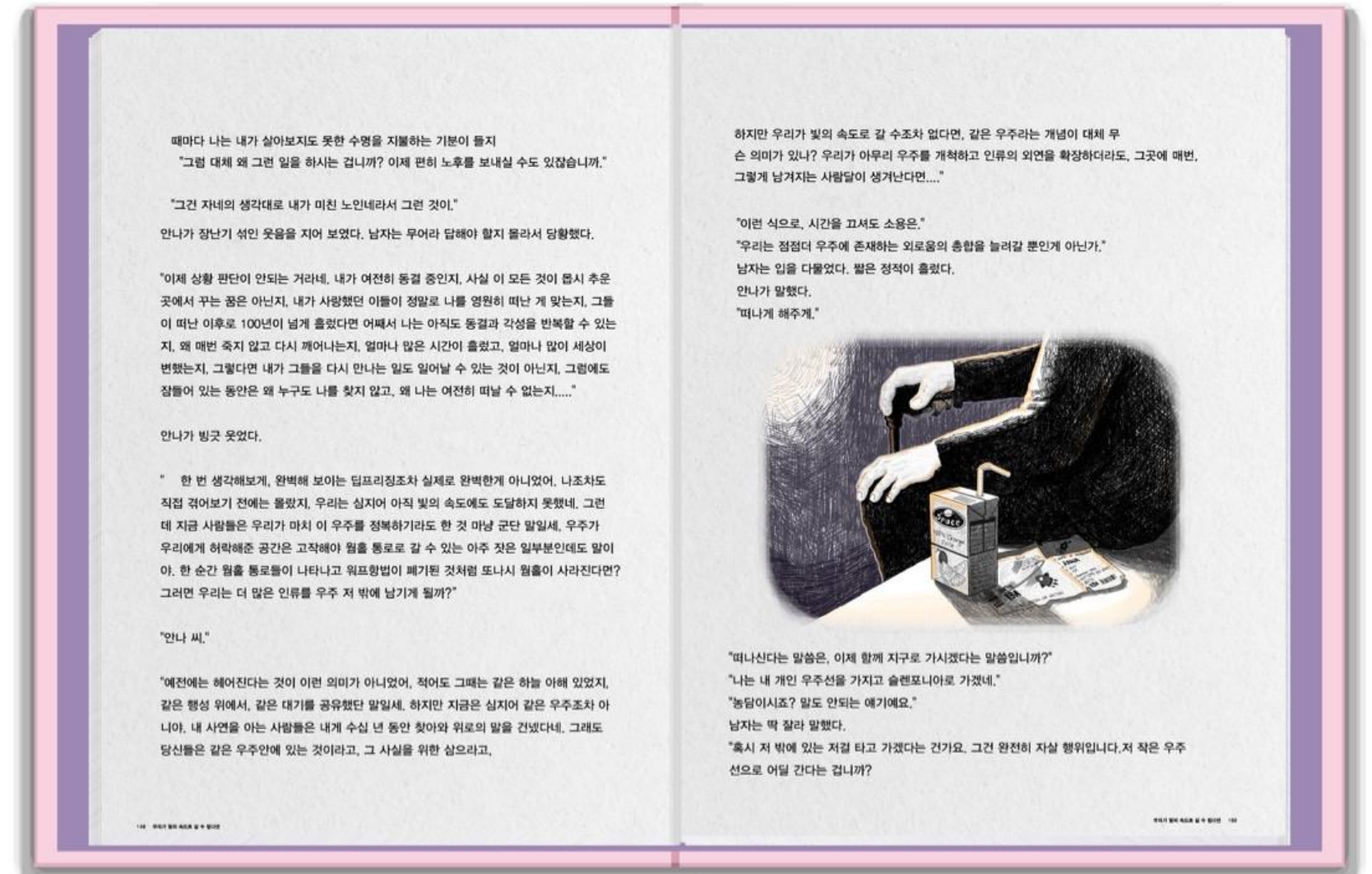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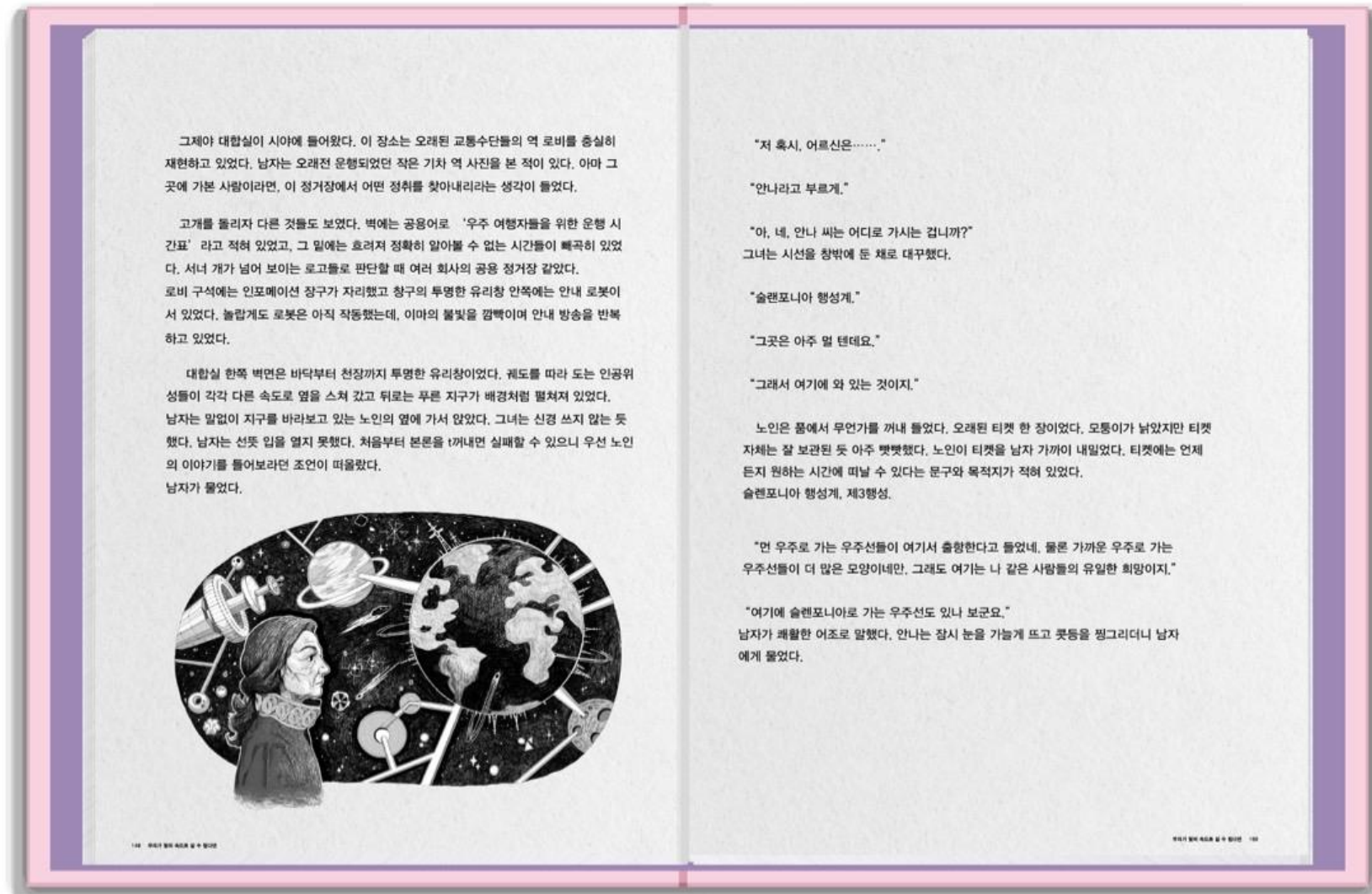
출판미술 A반 윤종필 선생님



꽉 끼안고 그의 온기를, 나 살아있다는 심장의 울음을 듣고 싶다.
그 울음에 나도 살아있어, 라며 답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있는 힘껏.
그리고 그동안 무얼 찾아 헤매고 다녔냐며, 많은 걸 보고 또 적당히 잘 먹고 다녔냐며
태연한 척 안부를 건네고 싶다.

김예진
190731, 21.0 x 29.7(cm), **켄트지에 연필**, 2020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현진영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3508x2480px, digital,
2020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우리 심장은 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에는 녹고 말지. 울지 않겠다고 할머니랑 약속 하겠니? 울지 않아야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단다.” 나는 할머니를 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할머니

(중략)

“이 목걸이가 눈나라를 생각나게 해줄 거다.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눈나라를 떠올려라. 그러면 견디기 쉬워질 게야.”

(중략)

할머니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한 다음, 한번 더 나를 꼭 껴안아주고는 일어나셨다.

“나 먼저 들어가마.”

할머니는 저녁 하늘이 담긴 눈으로 나를 잠시 보다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할머니’하고 소리쳐 부르려 했으나...

소멸하는 밤

깨진 거울은 나무가 되고
낮은 곳에서 시작 되는 것,
지켜내지 못한 것들이
그, 밤으로부터 구부러집니다.
잠들이 무너지는 밤
당신을 옆을 지키지 못한 삼일동안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러 갑니다.
창밖의 별들이 보랏빛으로 자라고
어제의 죽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잃어버린 그름의 표정을 별들을,
멀리 두고 오고 싶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 따위들을
겉이 나지 않느냐고,
돌아와야 하는 거실은
불이 켜지는데
별자리는 찬란하게 무성합니다.
나의 입술이 열리고
나는 새 한 마리,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을 밀어내려 갑니다.
그리운 것들을 마음으로 밀다보면
그곳으로,
이곳으로 새가 앉고
그리움거나 그리다 만 것들
새것,
새어가는 것,
새가는 것
많은 새들이 나를 통과합니다.
바람이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새의 깃
아직 세우지 못한 빛들이 젖어듭니다.

밀어 낼지 못한 말들이 오랫동안 휘어져 있기를
돌아오는 담장 너머 웅크리고 한참을 글썽이다
나는 나무 한그루 되고,
몇 개의 잎사귀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꿈을 꾸어도 되는지
자꾸만 당신의 잠을 생각하는 밤
너무나 많은
나는
다시, 잠이 듭니다.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함미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결말도 있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용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일을 모른다
가슴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분명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걸
'여행'이란 말도 한번 써두어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이거저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견일 거냐

너도 무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꽃 3

아무렇게나 피어도
피는 꽃은 없다

눈금기의 억울함과 슬픔과
기도가 땅에 피는 꽃

그렇다면 산도 바다도
장물도

하늘과 땅과 억울함과 슬픔과
기도도 피어내는 꽃일 것이다.

인생

희창한 날처럼 믿고
가벼운 옷처럼과 신발로 길을 나설지
황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도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뭘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맞인 하여 날처럼 쾌 속일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라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온
솔솔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었으니깐요.



한지원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아크릴, 디지털, 29.7x21(cm), 2020



첫번째,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미 특정 장난감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두번째, 의도적으로 장난감 유통은 중지 품절시킨 다음, 대체품을 내놓았다.
 세번째, 크리스마스가 지난 상황에서 특정 장난감을 다시 광고해 사게 만들었다.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메리는 껍질을 먹다가 비밀의 화원에 서 둥근 알뿌리를 파낸 것을 생각하고 마샤에게 물었다.
"마샤, 양파처럼 생긴 하얀 뿌리가 뭐지?"
"알뿌리입니다. 봄에 피는 꽃 중에는 그런 알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알뿌리는 오래 사니? 아무도 눈보지 않아도 몇 년이고 살아?"
"그런요, 알뿌리는 가장 내버려 두면 흙 속에서 자라고 뽕이 세 끼 알뿌리를 만들어 내요."

메리는 식사를 마치고 난롯가에 앉아 나오는 불꽃을 보면서 온갖말을 했다.

"작은 삼이 있으면 좋겠는데..."

"작은 삼요? 아가씨가 그럴 뉘 알리고요?"

"어린 나무 크고 씩씩해, 인도에서는 유모가 나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작은 삼으로 땅을 파서 조그만 정원을 만들고 싶어."

"작은 삼이다... 가게에 2실링짜리 정원 가꾸기 세트가 있던데 문뜰해 보았어요, 그 가게에서 꽃씨도 파는데 디콘에게 정원 가꾸기 연장과 꽃씨를 사 오라고 편지를 보내 놓을 게요, 디콘은 어떤 꽃이 예쁘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샤가 뜨겁게하던 양말을 들고 발로오차메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알아냈어, 그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마샤는 무릎 위에 뜨겁게걸음을 떨어뜨리고 놀란 눈으로 메리에게 소리쳤다.

"어젯밤에 또 그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려고 나왔지, 바로 풀린, 풀린의 소리였어."

마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가씨! 그런 것을 하면 안됩니다, 매들록 무인이었던 문명계가 아가씨한테 얘기한 줄 알고 저를 아단질 겁니다."

마샤는 울상을 짓고 겁에 떨었다, 메리는 마샤에게 지난밤 일을 말했다.



그때 정원에서 밭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겁 안으로 이어졌고, 문이여 여기저기 문을 열고 기웃거리러는 소리가 나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 예쁜 무인도 태원님도 모두 죽다니..."

"아이가 하나있다고하는데 그 애도 죽었겠지?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더군."

드디어 그들이 메리의 방문을 열었다.

"아니!"

그들은 놀라움을 다들지 못했다. 못생기고 심술궂게 보이는, 바깥 마른 조그만 아이가 인상을 쓰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메리는 배가 고른 데다 자신이 부관실 속에 내뿜게졌다고 생각하던 잠이랄 얼굴을 관동 정그리고있었다.



붉은 가슴을 새는 숲 덩굴 아래로 날아다니다가 흙더미에 쫓겨 내려앉았다. 그곳은 개가 두더지 구멍을 파헤쳐 놓은 곳이었다.

새가먹이를 찾으려는지 구멍을 들어다보자 메리도 따라서 들어다보았다. 그런데 파헤쳐진 흙 속에 회고리 같은 것이 삐죽 올라와 있었다. 메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열쇠였다. 갑자기 가슴이 똥딱거리기 시작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메리의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던 것이다.

"바로 그 열쇠가 틀림없이, 10년 동안이나 잠겨있는 정원의 열쇠 말이야."

메리는 오랫동안 열쇠를바리보았다. 그럴 보고 있을 수록 생각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열쇠를 가졌으니 이제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메리는 오래된 장미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아 있는 것은 없는지 정원을 살펴보고 싶어졌다. 그정원을 자기 혼자만의 비밀 정원으로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가서 놀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메리는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담장을 넘어가보며 쿵쿵히 왔다갔다했다. 하지만 담쟁이덩굴만 뽀뽀하게 얽혀있을 뿐 문 같은것은 흔적도 없었다.

"꼭 찾아내고 말 거야."

메리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잠시 후, 복도를 달려오는 밭소리가 들리더니 메리가 문을 열어 쫓겨나 나타났다. 바깥의 상쾌한 공기를 방안으로 몰고 들어온 메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예뻐! 드디어 봄이 왔어, 저번에도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진짜 온 게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었어, 이제 진짜 봄이야!"

메리는 창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싱그럽고 상쾌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메리가 말했다.

"이제 바로 신선한 공기야, 반듯이 누워서 숨을 들이마셔 봐, 그러면 깃털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고, 몸이 문뜰해서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 디콘이 그랬어, 자, 어서 숨을 들이마셔 봐."

"영원히, 영원히!"

풀린은 메리의 말을 따라 하면서 눈을 감고 숨을 깊어깊이 들이마셨다. 메리는 풀린의 침대로 다가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디콘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 있어."

풀린이 메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다. 간호사는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좀 놀란 듯 말했다.

"술지 않으세요? 창문을 닫을까요?"

"아니 난 지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중이야."

간호사가 나가려고 몸을 돌리자 풀린은 한껏 달달한 소리로 말했다.



김성하
비밀의 화원, 각 21×14.8cm, 종이에 색연필, 수채, 2020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우지연
UNKNOWN, 1620x2160px, digital, 2020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김예은
털과 오리, 각각42.0x29.7(cm), 디지털 드로잉, 2020

네 머리를 쓰다듬고 강에 뛰어들고 싶다
오래오래 허우적거리며 손의 감촉을 버리고 싶다
한 행성이 내게 멀어져 간 것은 재앙이다

네가 두고 간 것들을 나만 보게 되었다
너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김하연
알고싶으면 카메라를 켜시오. <부제: 몰라서 미안해...>, 점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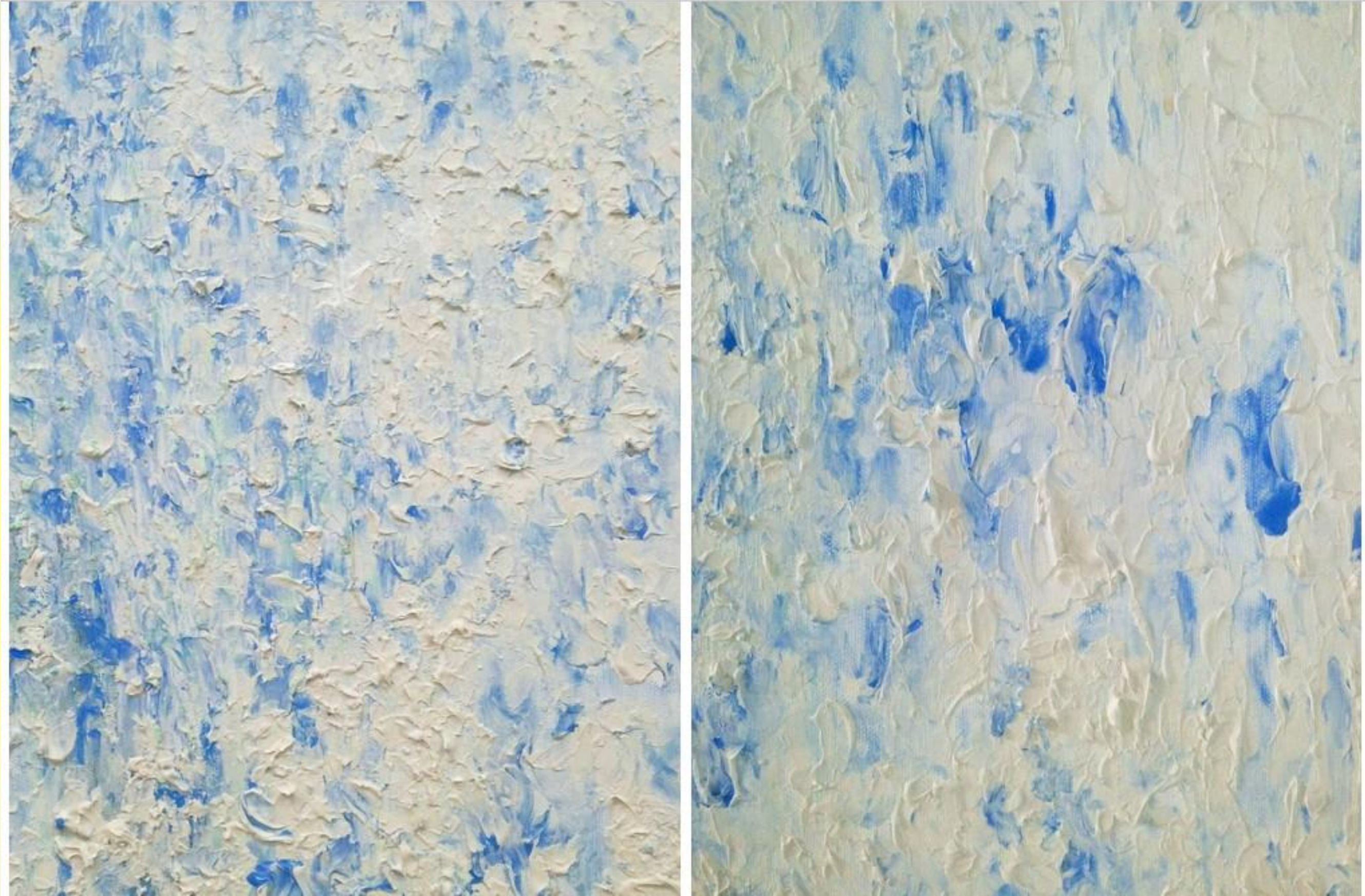
한바탕 휩쓸고 간 폭풍의 잔해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지막 작품.

독백의 순간을 버티 고야 비로소
너는 예술이 되고 또 전설이 되었네.

“너는 꼭 살아서, 죽기 살기로 살아서,
내가 있었음을 음악 해줘.”

그는 동경했던 기어코 물을 만나서
물고기처럼 떠나야 했네.

출판미술 B반 윤종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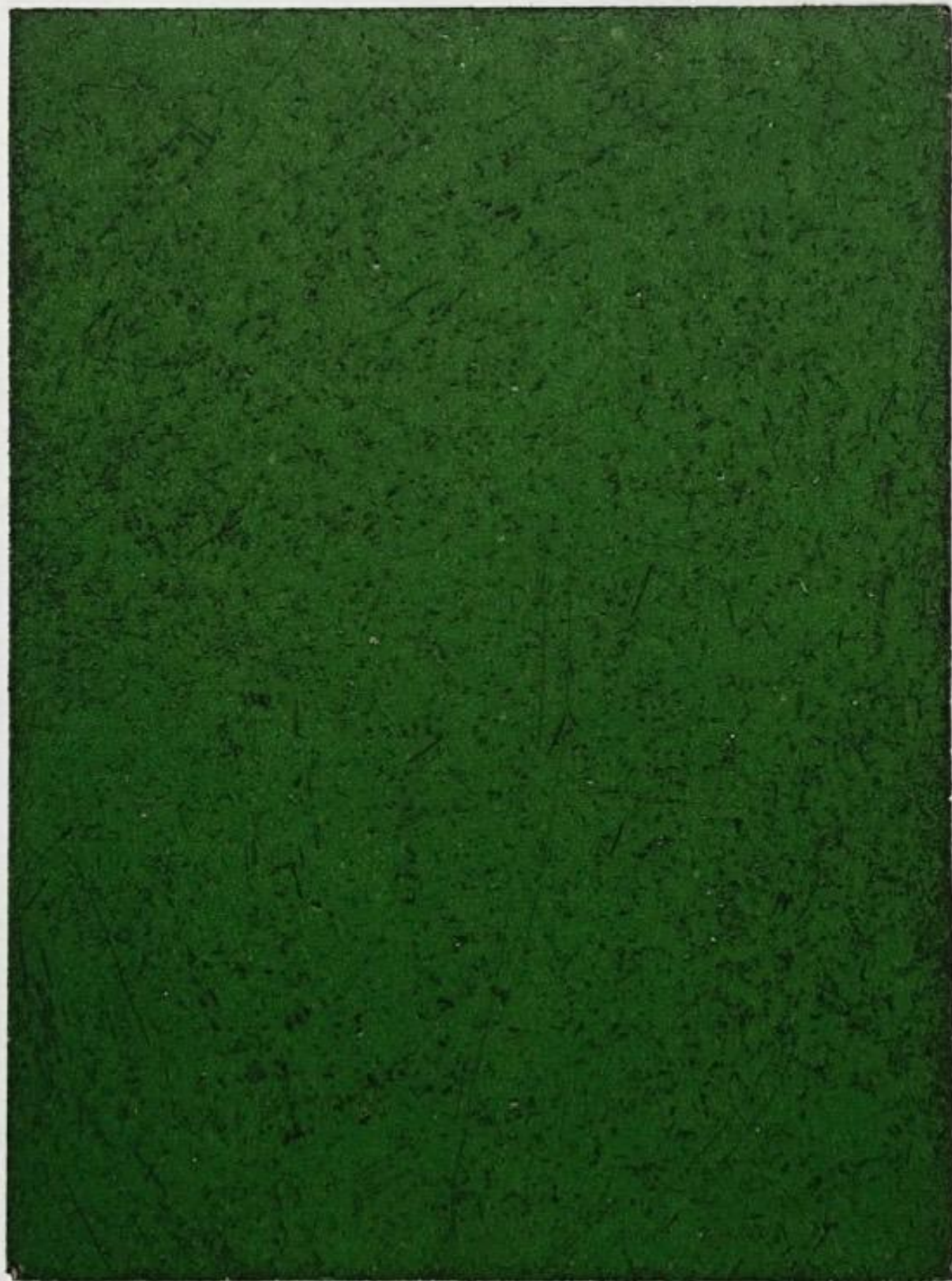
김수지

<판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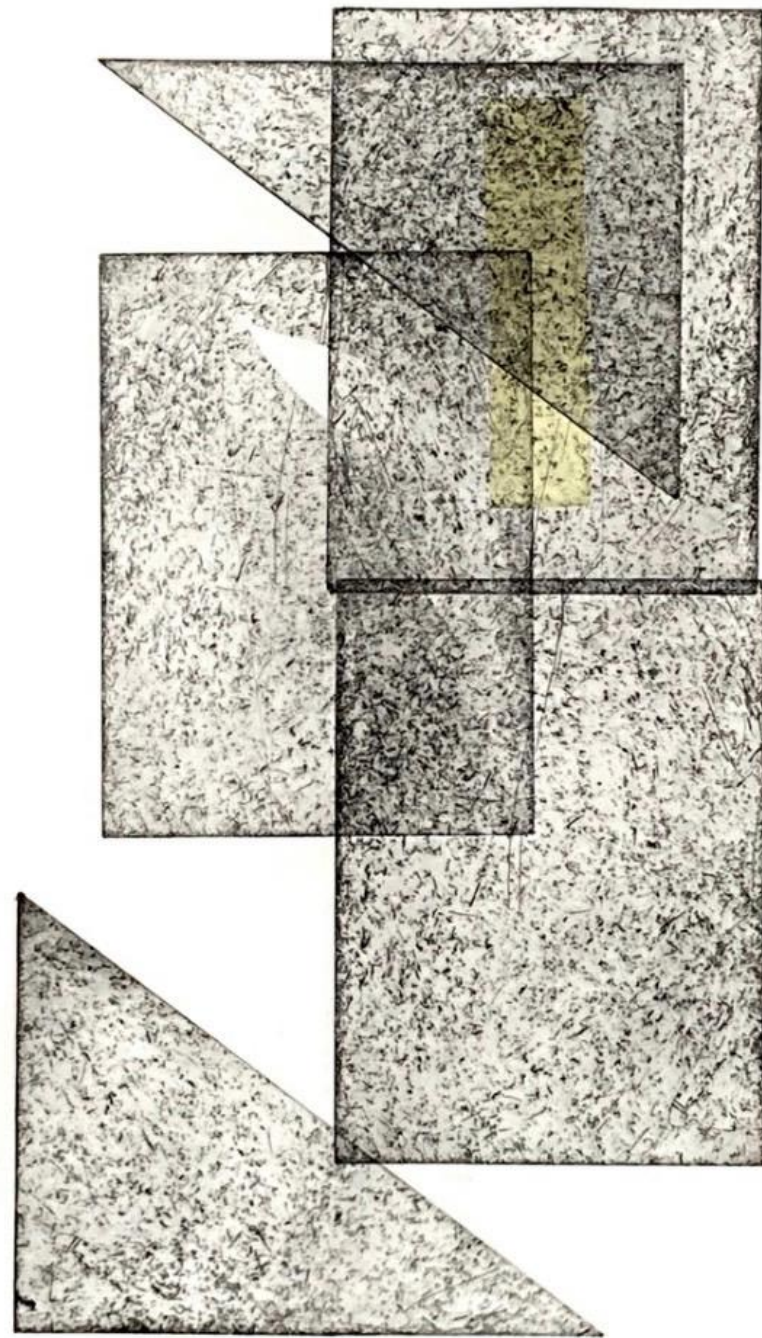
A반 - 윤세희 교수님

B반 - 김홍식 선생님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A.P asphalt 2020/3/20



A.P asphalt 2020/3/20

최민준

Asphalt, 21.0 x 31.0 cm, etching, 2020
Asphalt, 32.0 x 60.0 cm, etching,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1/1

공구공칠하나일일곱

이경준



1/1

직선의 가을

이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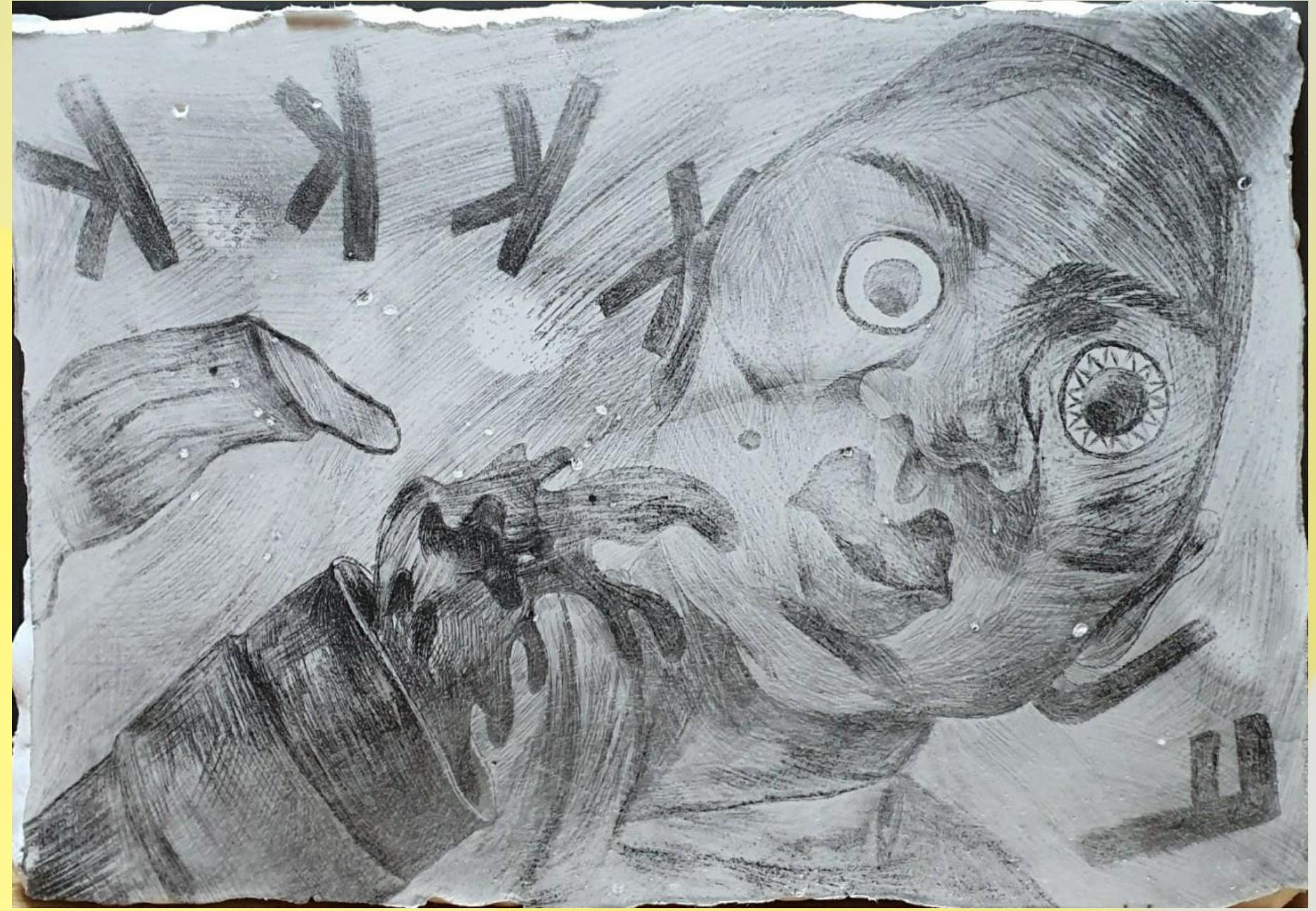
이경준
공구공칠하나일일곱, 29.7 x 42.0cm, 펜화, 2020
직선의 가을, 32.6 x 49.2cm, 수성모노타입,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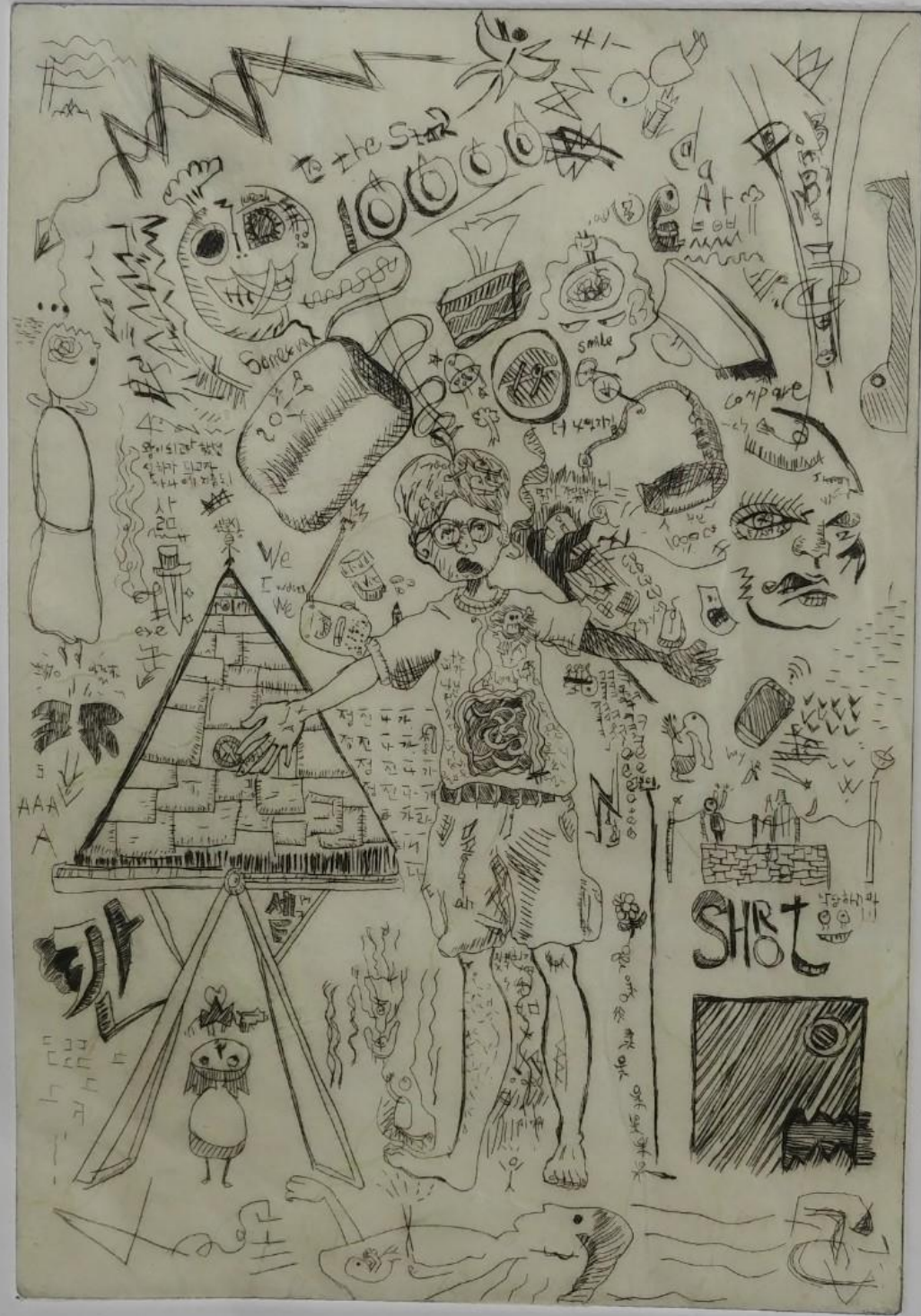
고수민
꽃, 21 x 29.7 (cm), 드라이포인트, 2020
꽃, 10.5 x 15 (cm), 드라이포인트,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김가연
1+1, 21×30 cm, 드라이포인트, 2020
진상, 그대들에게, 21×30 cm, 드라이포인트,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2/3 집에 혼자 있다면,
여러가지 생각이 난답니다.



1/2 혼자 잘~논다.



1/1 너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며.

최성우
집에 혼자 있다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난답니다.,
21 × 30 cm, 아크릴판에 드라이포인트, 2020

혼자 잘~논다., 20 × 15cm, 동판에 에칭과 친콜레,
2020

너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며., 29.5 × 41.5cm,
아크릴판에 수성모노타입,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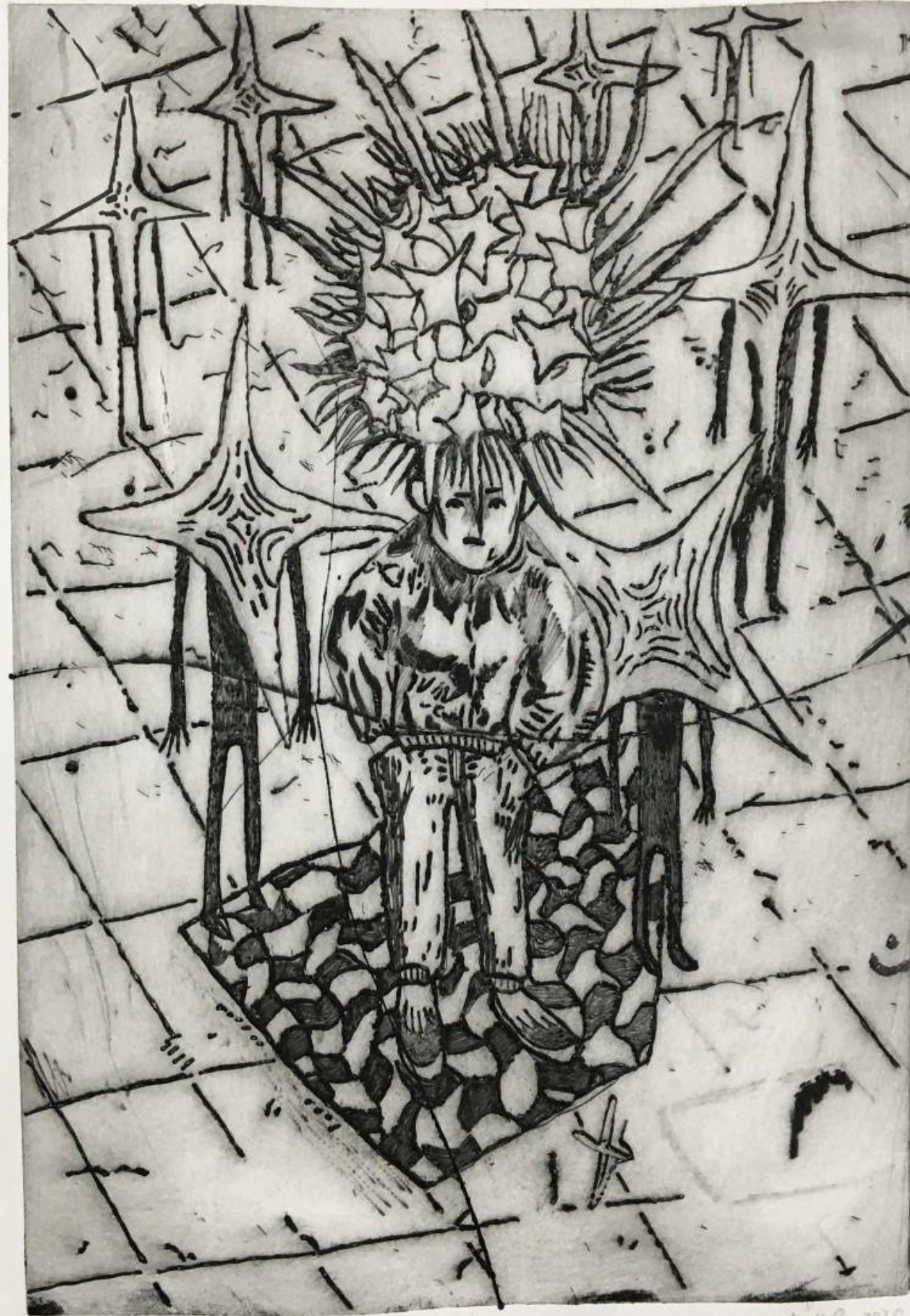
인연

장지숙 2020

장지숙
17층, 10.5 X15 (cm), 드라이포인트, 2020
인연, 29.5 X 41.5cm, 아크릴판에
수성모노타입,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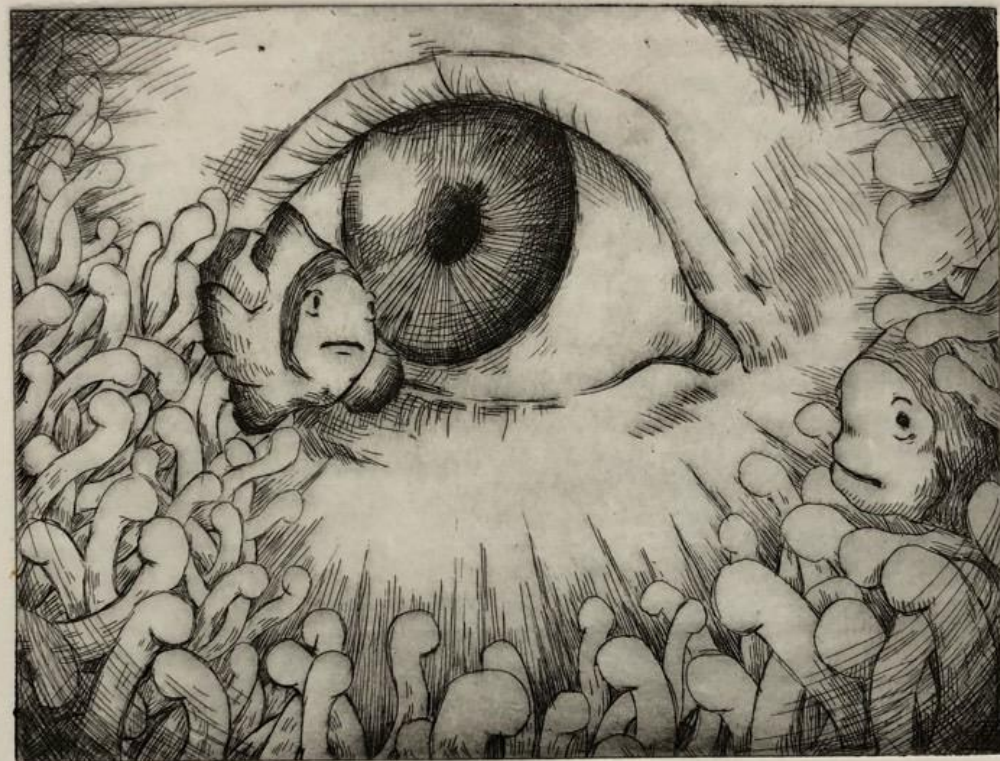
3/3

별수호자

안태원 2020

안태원
별수호자, 20.5x30 cm, 아크릴판에 드라이포인트,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1/1 시선 정예나



1/2 중독 정예나

정예나
시선, 20 × 15cm, 동판에 에칭, 2020
중독, 21 × 30 cm, 아크릴판에 드라이포인트,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1/1

나를 소개하지

윤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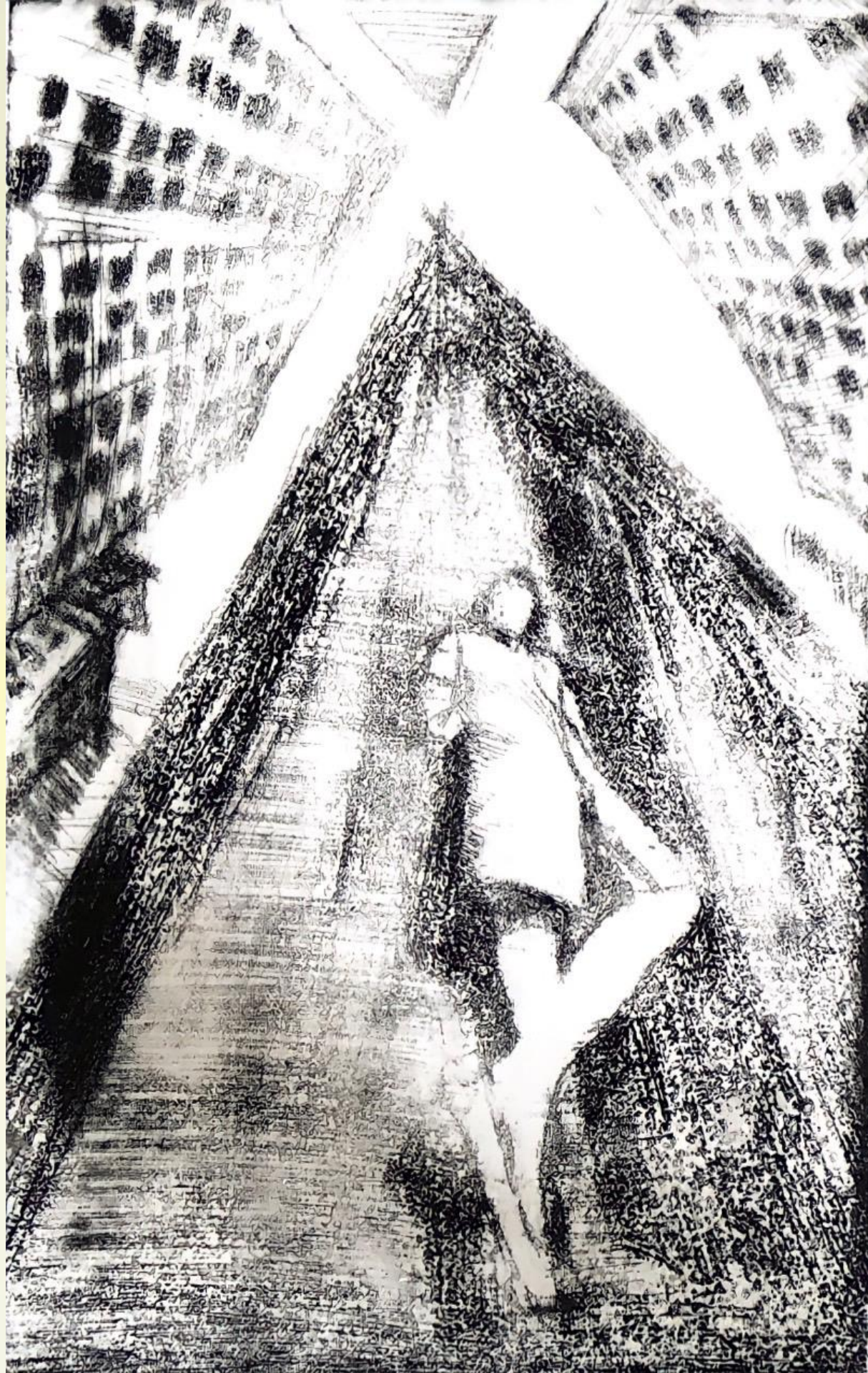
1/2

미도리

오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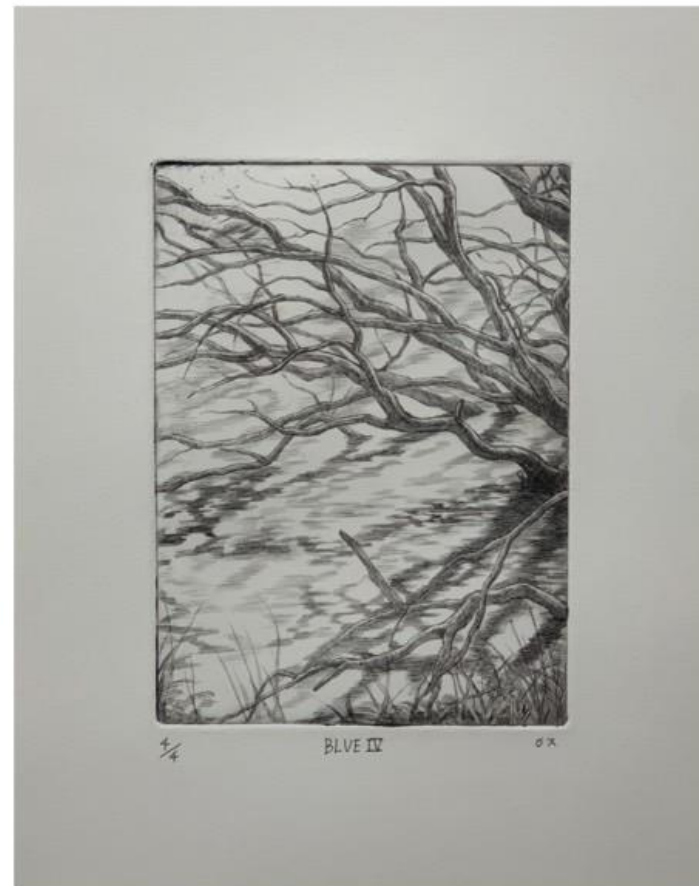
오병욱
나를 소개하지, 21X30cm, 아크릴판에 드라이포인트, 2020
미도리, 15x20cm, 동판에 에칭, 2020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고정연

판화(2) A반 윤세희 선생님



김예진
BLUE, 10 x 14.8(cm), 켄트지에 유성잉크, 2020



1/6

marimo

2020

현진영
Marimo, 27x39.5cm, Silk screen, 2020



판화(2) B반 김홍식 선생님



김예은
집으로 가는 길, 27x39.5cm, 실크스크린, 2020



1/10

I Love Grape

김민영 2020

김민영

I Love Grape, 39.4 x 27.2 cm, 실크스크린, 2020



1/7

넘지마

김성하. 2020.

김성하
넘지마, 21×30cm, 실크스크린, 2020

판화(2) B반 김홍식 선생님



1/4

21

한지원 2020

한지원
21, 27.2x39.4(cm) , 실크스크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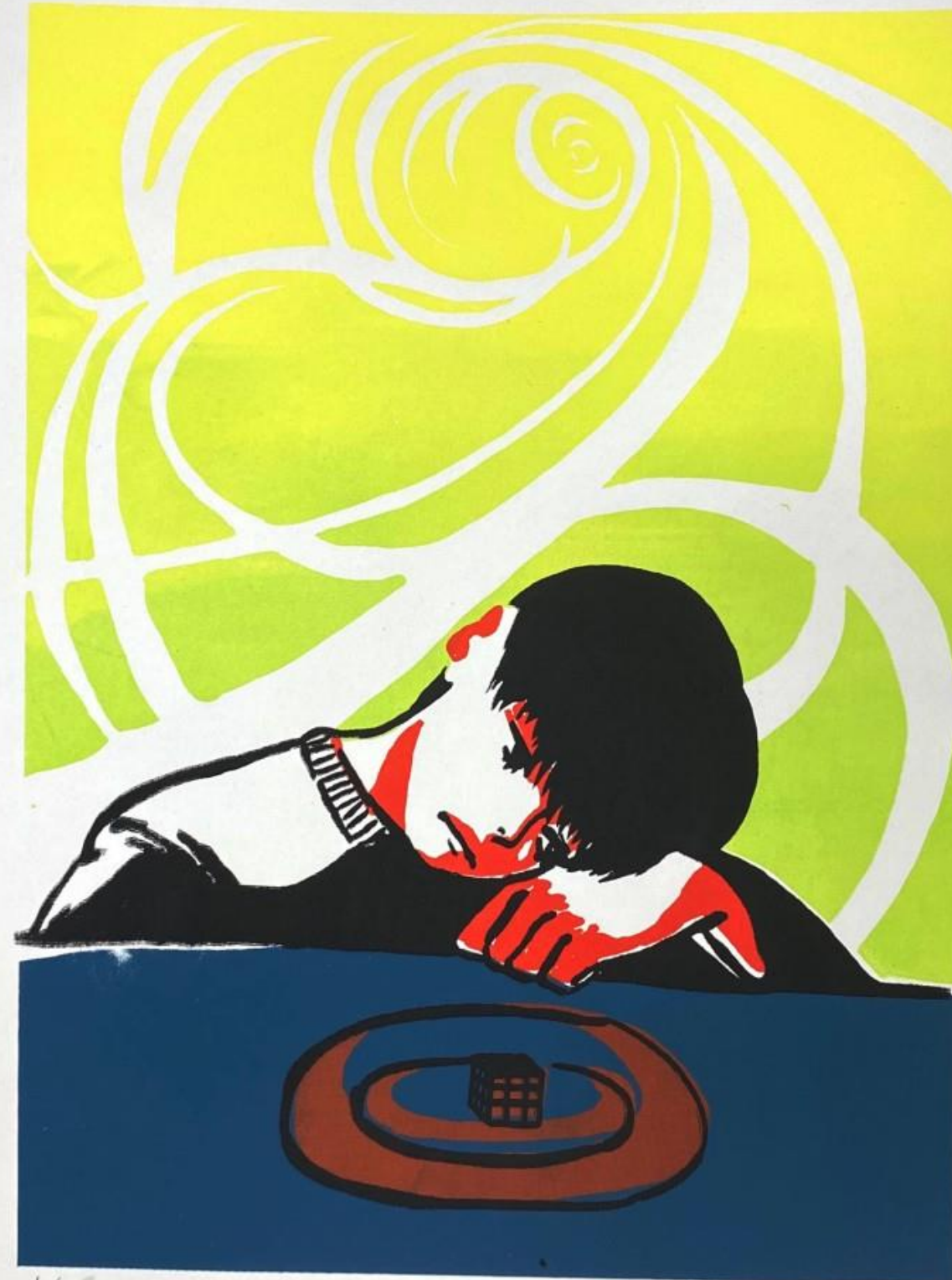
11/11

My Playground

최지영 2020

최지영
My Playground, 39.4 x 27.2 cm, 실크스크린, 2020

판화(2) B반 김홍식 선생님



1/1

잡생각

신지혜 2020

신지혜
잡생각, 27.2 x 39.4 cm, silk screen, 2020

판화(2) B반 김홍식 선생님



A.P. 1/5

Busan

이유진 Jamin

이유진
여행자의 시선, 27x 39 cm, silk screen, 2020



| Thank you